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3년 10~11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 -
- 신속히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

■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도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23년) >

전국 (40개, 3,058명)	서울 (8개, 826명)	부산 (4개, 343명)	대구 (4개, 302명)	인천 (2개, 89명)	광주 (2개, 250명)	대전 (3개, 199명)	울산 (1개, 40명)	경기 (3개, 120명)
	강원 (4개, 267명)	충북 (2개, 89명)	충남·세종 (2개, 133명)	전북 (2개, 235명)	전남 (-)	경북 (1개, 49명)	경남 (1개, 76명)	제주 (1개, 40명)

■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이다.

* (65세 이상 인구) '10년 551만 명 → '20년 850만 명으로 10년간 299만 명(54.3%) 증가

** 30년간('21~'50) 의료이용 48% 증가, 건보진료비 43조 원(90조 원→133조 원) (서울대 홍석철)

*** ('35년 의사 부족분) 9,654명(보사연 신영석), 10,650명(KDI 권정현), 10,816명(서울대 홍윤철)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한다.

1

추진 계획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 (수요조사)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하여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 (점검반 운영)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반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5학년도 정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 (의료사고 부담완화)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 (보상강화)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근무여건 개선)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3. 대외 소통

■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계 소통)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 (사회적 논의)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2

추진 일정

■ (수요조사·점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 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정원 확정)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 (정책패키지) 필수요로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요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요로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072. 의료인력정책과. 2023. 10. 26.

II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 20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00개소로 확대 목표 -
-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11.15~12.8)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Aging In Place)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일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하여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기능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여 '23.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①만성병·통증 관리, ②노인병 증후군** 발생, ③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급자 중 비율) 1등급 0.64%, 2등급 0.47% 3등급 0.18%, 4등급 0.14%

** 시 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하나 이상의 의료적 문제의 모임

-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수)부터 12월 8일(금)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도 참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부 재택의료팀 (이메일 : 00B607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부 재택의료팀 (033-736-1925~7)

-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141. 요양보험제도과, 2023. 11. 14.

III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 11월 29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2024년 참여자 집중 모집 -
- 2024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폭인 14.7만 개 확대한 103만 개 제공-
- 2024년 노인일자리 예산 1조 5400억 원 → 2조 262억원으로 대폭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폭인 14.7만 개를 확대한 103만 개가 제공된다.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1월 29일(수)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 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노인일자리란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된 103만 개의 노인일 자리를 2024년 제공하고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198. 노인지원과. 2023. 11. 28.

IV

아동이 행복한 나라! 다시 뛰는 드림스타트

- 제16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
- 대통령표창에 서울 구로구·강동구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1월 30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1박 2일간 더케이호텔 경주(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제16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 드림스타트는 각 시·군·구에서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양육환경 및 아동 발달 사정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각 시·군·구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22년 말 기준 4만 9,558가구, 6만 1,684명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올해 16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 다시 뛰는 드림스타트!」를 주제로 아동정책의 공적 전달 체계인 드림스타트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종사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약 630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 구로구와 서울 강동구가 대통령 표창을, 인천 서구와 서울 은평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그 외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 및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총 35명이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 * (사업운영 평가) 지역유형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23년도 평가 대상인 대도시 자치구 69개 드림스타트에 대하여 조직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등 운영 전반 평가 (지역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 / 대도시 자치구)
- 또한 벚꽃봉사단(서울 도봉구 소재), 여우야여우야 미용실(경남 거창군 소재)은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무료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

를 받았다.

- 아울러,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던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아동의 관점에서 드림스타트의 지원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지원을 받은 김희원(가명)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고, 저 도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을 받는 상황에 둘째 아이까지 심장이 많이 아팠어요. 드림스타트 덕분에 둘째 아이가 안산 단원병원의 후원으로 심장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였어요. 또 이렇게 가정이 안정된 덕분인지, 첫째 아이는 근대 5종경기 선수가 되어 최근에 근대 5종 경기 회장배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어요”라며, “저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드림스타트 모든 담당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심화되는 저출산 속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무에 더욱 힘 써주시기를 담당자들께 당부드린다” 라며,
- “앞으로도 드림스타트가 아동사례관리 분야의 공적 전문기관으로서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216. 아동권리과. 2023. 11. 30.